

조정훈 의원 “결국 창조질서의 정치가 이길 것”

한복협 월례회서 ‘기독의원으로서의 정치 비전’ 등 강연
창조질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통해
남녀 외 제3의 성, 창조질서에 어긋나
기독교 사학 자율성 보다 더 확보돼야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 한복협)가 최근 서울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에서 ‘22대 국회에 묻는다 (한국 기독교 현안)’라는 주제로 월례 창조기도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나서 ‘기독의원으로서의 정치 비전’ 등에 대해 강연했다. 조 의원은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제가 정치를 하며 가지고 있는 기준은 창조질서다. 여기에 부합하면 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당에서 가지고 해도 찬성할 수 없다”며 “이것이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실천한다고 하는 기독교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와 같은 기독교 정치인은 성경이 말하는 원칙, 곧 창조질서를 세상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세상의 언어

어로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해야 하는 게 세속국가에서 정치하는 기독교인들의 과제”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창조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통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질서를 따라 사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라며 “믿든 안 믿든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게 자연스럽다. 남녀를 넘어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창조질서의 정치가 이길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보다 더 확보돼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사학법의 개정으로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교원임용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그는 “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조정훈 국회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례로 양육하라(렘 6:4)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이 기독교 학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제도는 창조질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신앙을 갖고 정치에 뛰어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날카롭다. 갈라져 있다. 중간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파적 생각은 물론, 좌파적 생각의 일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를 강조하는 우파적 생각, 그리고 모두 같이 살아야 한다

는 좌파적 생각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까지 끌고가면 나쁜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상에 평등사상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생각하는 우파정지도 당연히 우리 정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예언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 이전에 영적 부흥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며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이 있을 뒤 통일이 올



성락성결교회에서 한복협 월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 최근 대법원이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과 관련해 “동반자라는 이유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었다는 건 건강보험을 넘어 동성결혼으로 달려가는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다루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표에 앞서 열린 기도회에선 지형은 목사(한복협 부회장)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롬 9:1-9)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지 목사는 “신앙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지만 걸어가 는 미래에 약속이 이뤄질 것을 희망하며 산다”며 “약속은 반드시 이뤄진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보다 더 큰 하늘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이일호 교수(이스라엘연구소장, 전 칼빈대 교수)와 신화남 장로(벤엘교회 원로)의 인도를 따라 합심으로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5년 전 35만의 부르짖음… 다시 열리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

10월 3일 본 행사 앞두고 준비 모임 열려
조용묵 목사 “철저히 하나님께 공홀 구할 것”
임영문 목사 “회개하며 교회 회복 간구하자”
심하보 목사 “교회·나라 세워지게 해 주소서”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한 제2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 오는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 안양 은혜와진리교회 대성전 및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를 주최하는 한국교회기도의날 기획집행위원회는 기도회를 앞두고 최근 안양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전국 각 지역 교계 대표들을 초청해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 기도회는 서울시청 일대에서 성도 약 3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2019년 10월 3일 열렸던 제1회 기도회 후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전국과 전 세계에서 더욱 많은 이들이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준비 모임에서 조용묵 목사(은혜

와진리교회)는 “5년 전에는 모두가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느껴, 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니 누가 사귀지 않아도 울면서 태극기를 들고 구름떼처럼 모였었다”며 “지금은 일단 정권이 바뀌었기에 위기에서 한 걸음 벗어났으나, 실제 상황은 더 어렵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쉽게 태만해진다”고 했다.

조 목사는 “체를 과시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위 성격의 집회가 있고, 순수하게 기도만 하는 부흥회 성격의 집회가 있다”며 “물론 전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철저히 하나님께 공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전부”라



제2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 준비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특정 장소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라도 와서 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회가 결심하고 움직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모두 모여 뜨겁게 기도하자”고 했다.

이번 기도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

연합회(전기총연) 이사장 임영문 목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며 “우리 민족도 역사 속에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 2019년 10월 3일, 한국교회는 전국적으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해를 구했다”고 했다.

임 목사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동성애 문

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마약과 중독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는 너무 무질서하다. 많은 국민들도 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못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역시 지금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임 목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을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임 목사는 “5년 전 기도회 당일 태풍이 예고되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하

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자.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모임에 앞서 기도한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담임,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사상과 이념을 모두 꺾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이 모임을 통해 교회와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평화와 화해, 세계 그리스도인의 사명” >> 7면

이선종 “한 시대가 있어 성소를 기쁘게 함” >> 22면

여의도 옆 신길뉴타운내 “특별혜택 아파트” 인기 폭발!!!

PRUGIO

분양권 전매 가능
청약통장 주택소유 여부 무관
실거주 의무가 없는 아파트
갭투자 1억 5천~2억 원대로
시세차익은 ‘덤’

대우건설

신길뉴타운역 5분
신길역 5분
여의도역 5분

이벤트 : A타입 계약자
선착순 5분
황금 골드바 20돈 증정

49m²A

49m²B1

특혜혜택

- 콤비 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 3구쿠팡, 전기오븐, 욕실비데 등 - 가전 옵션 무상
- 발코니 확장, 현관 층문, 팬트리 선반 등 - 무상시공
- 중도금 우이자 ■ 잔금유예 5개월 ■ 계약금 5%
- 추가 특근 특별 혜택(대행사 입주지원 파격 혜택)

교통

- 지하철 7호선 신동역, 1호선 영등포역, 5호선 신길역, 신안산선 신동역(2025년 개통) 신림선, GTX B노선 예정(여의도)

환경

- 롯데백화점, 타임스퀘어, 마아트, 신세계백화점, 여의도 더현대 등
- 도림초, 신길중, 대영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보통학권)
- 단지안 신길3동 주민센터, 어린이 놀이터, 휘트니스센터, 주민회의실, 커뮤니티 시설, 병원, 커피숍, 학원 등

주변시세

신길 뉴타운 주변 아파트 시세 : 3.3m²당 시세
□ 매매가 약 4,500만 원 ~ 5,200만 원 정도
□ 전세가(42m²~49m²) : 5~6억 5천만 원

3년 전 분양가 8억 원대 : 3.3m² 당 3,700만 원대~
갭투자 1억 5천 ~ 2억 원대로 - 시세차익은 ‘덤’
실거주는 생애 최초 담보대출 80%까지 가능

■ 청약금 300만 원 ■ 입금계좌 : 농협 301-0294-7751-91 ■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 청약금 입금순으로 동, 층, 타입 마감합니다. ※미계약 시 청약금은 100% 환불됩니다.

상담문의 1551-3228

· 규모 : 지하 5층~지상 24층, 총 5개동 / 공동주택(아파트) 296세대, 주차대수 : 477대

· 시행 : 대한토지신탁(주) 시공 : (주)대우건설 위탁 :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에 경찰 협조 부탁”



조지호 경찰청장(앞줄 왼쪽)과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앞줄 오른쪽)이 양측 배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

조지호 경찰청장, 신임 인사차 한교총 예방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앞줄 왼쪽)이 최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예방하고 장종현 대표회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조지호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지난 7월 제24대 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조지호 청장을 맞이한 장종현 대표회장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일에 불철주야 앞장서시는 경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들을

살뜰히 챙기는 청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청장은 “경찰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 비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경찰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화답했다.

장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동성에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오

는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장 대표회장은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동성애와 동성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동성에 확대를 막기 위해 10월 27일에 200만 성도가 모이는 기도회를 연다”며 경찰의 협조를 부탁했다. 장 대표회장은 “이것은 종교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와 질서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문제”라고 강

조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경목제도의 활성화와 경찰신고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눴으며, 기독교계와 경찰의 유대와 협력 속에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경찰청 김병우 경무인사기획관과 민중석 경무담당관이 함께 했으며, 한교총에서는 신평식 사무총장과 예상 백석 김종명 사무총장, 장형준 총무가 배석했다. 김진영 기자

고신, 동성커플 피부양자 우려 성명… 10·27 집회 참여 결의

교인 수는 지난해보다 6,810명 준 378,376명

예장 고신(총회장 정태진 목사) 제74회 총회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총회 둘째날이었던 11일,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우려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고신은 이 성명에서 “고신교회 2,100 교회와 40만 교인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사실상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첫 대법

원 판결이며,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일부 인정할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에서 동성에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가법적 여결 수가 없다. 동성에 동성혼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게 스며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동성혼 합법화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고신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자격을 혼인을 전제로 규정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혼인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되었듯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모든 규정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성 간의 결합과 동거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단히 안타깝고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지혜와 분별력으로 판단할 것을 호소하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다른 교파와 교단 교회, 기독교

인, 양심 있는 법조인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며,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고신은 이번 총회에서 오는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릴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에 총회적으로 참여할 것도 결의했다.

한편,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

월 기준 등록교인은 378,3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85,186명보다 6,810명이 줄어든 수치다. 집계를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 동안 감소한 교인 수는 93,638명이다. 교회 수는 2016년 2,024개에서 올해 2,123개로 소폭 증가했다. 목회자는 지난해에 비해 89명이 증가한 4,356명이다. 김진영 기자

기감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 이광호 목사 자격 논란

원천교회 담임 박은순 목사, 후보 자격 취소 요구하는 고소장 제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오는 26일에 진행되는 가운데 감독회장 후보 기호 1번 이광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가 제기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박은순 목사는 최근 감리교본부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인 기호 1번 이광호 목사의 후보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2일 기자회견을 가진 박 목사는 고소 이유로 “이광호 목사는 2022년 4월 21일 서울연회 감독으로서 쿼어신학자인 테드 제닝스의 사상을 계승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한OO 교수(당시 전도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연회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OO 교수가 쓴 신앙고백서를 통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독의 권위를 내세워 안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은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4단 제4조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1403단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죄사실이 있는 자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박 목사는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 이광호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초가 되는 교리와 장정 제2장 교리 편 제1절 신앙과 교리의 유산 1) 종교의 강령 제1조는 ‘성삼위일체를 믿은 제2조는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참사람이 되신 제3조는 그리스도의 부활 제4조는 성신 제5조는 성경이 구원에 족함 제6조는 구약은 신약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 없음 제7조는 원죄에서는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작금의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가라지자 아니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생명을 구원해야 할 목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며 “이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감리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려는 자들이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박 목사는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 어떤 일보다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잘못된 길에 있는 자들을 바르게 처리함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 감리회 목사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집회인 쿼어집회



기감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박은순 목사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장요한 기자

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지지할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자를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는 용납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경을 해체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1인의 사건이 6인이 되어 그들은 반성경적인 형태를 악성종양과 같이 퍼뜨리며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는 서울연회 감독 재임 시절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 주었다”며 “그러므로 속히 후보직에서 사퇴하여 이제라도 감리교회와 전도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할 것이며, 이광호 전 서울연회 감독은 감독회장의 자리를 탐하기 보다는 감독 재임 시절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감리교회와 더욱 어지럽게 되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되길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통합 증경총회장단 임원단, 김의식 총회장에 총회 불참 권고



예장 통합총회 증경총회장단(대표 팀인식 목사) 임원단이 김의식 총회장(사진)에게 오는 24일부터 창원 양국교회에서 열리는 제109회 총회에 불참해줄 것을 권고했다.

임원단은 권고문에서 “최근 야기된 여러 일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안팎의 여러 염려하는 말들을 듣는 우리 증경총회장들도 깊이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총회장의 총회 참석 여부를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며 “이에 우리 증경

총회장들은 긴급 임원 모임을 통해 총회장의 총회 참석이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총회 역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8일 김 총회장께서 김영길 부총회장에게 제109회 총회 불참 의사 표명과 함께 ‘총회 개회 및 제반 운영사항’을 일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와 같이 제109회 총회 불참을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원단은 “총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증경총회장들의 충심을 이해하시고 제109회 총회 불참 권고를 수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장 이슈

와 관련해 “윤리적, 정치적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총회, 노회, 교회 차리회 산하 모든 구성원은 헌법권장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며 “또한 헌법권장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일지라도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책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처리회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김 총회장이 속한 영동포도회 기소위는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위반행위로 김 총회장이 고발된 건에 대해, 최근 ‘성경상의 7개항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김진영 기자

Since 1914

KIRBY®

창문 달고도
케어 가능한
홈케어시스템, 컬비

110년의 역사, NASA의 기술로 완성된
세계적인 명품 홈케어 시스템, 컬비

미세먼지, 집먼지진드기까지
잡아주는
진구류 클린 시스템

의류, 패브릭, 애완동물 털도
손쉽게 관리하는
집브러쉬 시스템

먼지 제거는 물론
카펫 질감까지 되살리는
카펫 시스템

쉽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 진공 청소시스템

단시간
미세먼지까지 잡아주는
공기정화 시스템

컬비코리아 | 갤러리(제원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3길 15, 정진빌딩 | 대표전화 1899-9962 | www.kirbykorea.com

“조용기 목사님 본받아 예수님 지상명령 완수해야”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예배가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14일 새벽 경기도 파주시에 조성된 조용기 목사의 묘를 참배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날 예배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목회자와 성도들 1만 2,000명이 참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3주기 추모예배 드려져

故 영산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예배가 14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열렸다. 유가족을 비롯해 목회자와 성도들 1만 2,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조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 전도와 사랑의 실천에 매진하기로 다짐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이날 새벽 경기도 파주시에 조성된 조

용기 목사의 묘를 참배한 뒤 추모예배에 참석한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6:25 후 절망에 빠진 우리나라에 절대 희망을 선포하고 오종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강조하며 용기와 소망의 확신을 주신 분이셨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이어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을 본받아 한평생 묵묵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뒤를 이어 2008년부터 17년째 여의도순복음교회 2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이날 예배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활동을 엮어 제작한 영상 상영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영상 속 조용기 목사의 모습과 목소리를 들으며 세계 최대 교회를 일구기까지 묵화해 온 고인을 그리워하고 감사해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명

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이 영상으로 추모사를 전했다며, 가족을 대표해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이 감사인사를 했다. 이 밖에 이날 예배에선 영목회 회장 김용준 목사의 사회로 안병광 장로회장이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故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예배 드려... “성령 역사 이어가자”

故 조용기 목사 3주기 기념 추모예배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순복음영산신학원(총장 장혜경 목사) 대성전에서 드려졌다.

예배는 장경순 목사(순복음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17기)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윤택수 목사(순복음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17기)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송태섭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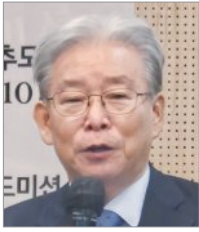
송 목사는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무엘 선지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라나신 분인데 천국 가기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 조 목사님은 30대 젊은 나이에 1958년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2021년 9월 14일 소천하시기 전까지 55년 동안 전 세계 71개국 나라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370여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다. 조 목사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특히 가난한 나라에 가서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했다.

그는 “조용기 목사님은 소천하시기 전까지 일생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살면서 십자가 복음, 예수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선구자이셨다. 조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어 복음을 전파할까 늘 생각하셨다”며 “목사님은 노년의 나이에도 해외에 나가서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썼다. 이런 조 목사님의 선한 영향, 열정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는 영적 권위를 말씀을 전하셨다. 목사님은 말씀 하나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때셨고 그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조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송태섭 목사



윤택수 목사

을 겪으셨다. 그런데 목사님은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애국자로 사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목사님의 설교는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교하셨다. 조용기 목사님의 이런 좋은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 목사님의 교훈을 본받아서 목사님 뜻대로 잘 살아서 대한민국에 큰 힘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고 했다.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기념 추모예배가 순복음영산신학원 대성전에서 드려졌다. ©최승연 기자



신원기 목사(순복음영산신학원 미디어부, 오른쪽)가 제1회 자랑스런 영산인상을 수상했다. ©최승연 기자

이어 이병순 목사(한국교회연합 공동회장), 임열수 목사(전 건선대학원대학교 총장)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이병순 목사는 “11년 동안 조용기 목사님을 섬기면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묵화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를 뿐이야’라고 하셨다. 그리고 저에게 가리봉동에 근로자 복지센터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경기도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 목사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목사님은 헌신하시면서 사람이 풍부하셨고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다. 여기 신학원에 계신 여러분들은 조 목사님의 그 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열수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 중심으로 묵화하셨다. 그뿐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셨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조

목사님은 성경을 보고 또 보셨으며 말씀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셨다. 이런 조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아 영산신학 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의 업적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시상식 순서에서 장혜경 총장의 주도로 제1회 자랑스런 영산인상 수상식

이 진행됐으며, 신원기 목사(순복음영산신학원 미디어부)가 상을 받았다.

이어 김정열 목사(순복음영산신학원 증경회장)가 헌금기도를 드렸으며 윤석원 목사(순복음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 동문회)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흥원 목사(7하성(순복음영산)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지구촌교회, 담임목사청빙위 구성 위한 설문 결과 공개

교인 7,158명 참여

지구촌교회 담임목사청빙위원회(미래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에는 여성 4,731명 남성 2,427명으로 교인 7,158명이 참여했다.

미래준비위원회 추천 방식으로는 △목양부서(장년, 젊은이, 교육) 마을장 목사 추천이 3,3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령별 지원자 모집 후 투표 2,029명 △영구제직회 추천(안수집사장로회, 권사회)

977명 △목회지원회 및 사역조정실 추천 813명 순이었다.

복수선택인 미래준비위원회 우선 자격은 △목양부서 이력 5,251명 △영구제직회 여부 2,005명 △사역봉사팀 이력 1,892명 △외부 및 사회 경력 860명 △교회 임명직 이력 849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준비위원회 적정 인원은 가장 많은 2,702명이 13~20명이라고 답했고, 1,842명이 30명, 1,507명이 12인 이하, 1,107명이 21~30명이라고 각각 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인들의 목자·마

을장 및 목원 여부는 △목장 참석 3,868명 △목자 1,804명 △목장 미참석 1,108명 △마을장 378명이었다. 참여 연령은 50~60대가 4,07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40대 1,795명, 70대 이상 1,058명, 20대 230명이었다.

교회 측은 “성도님들께서 금번 설문을 통해 주신 서술식 기타 의견은 별도로 요약 정리해 공지하도록 하겠다”며 “담임목사 청빙을 비롯한 교회 미래준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 구성 후 추가 설문을 통해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애경이 만드는 세상의 색깔은 블루

애경은 푸른색의 세상을 꿈꿉니다

지속가능한 푸른 내일을 위해
애경은 탄소저감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9월 조찬기도회 가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최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428차 월례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강사로는 OC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이자 주님의손길교회 담임 이창남 목사를 나섰다. 조찬기도회는 OC목사회 이원석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민길 이사장의 대표기도 후 이창남 목사가 '기도와 간구'로(빌 4:4-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기도는 '주 안에 서'하는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걱정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역설

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 특별히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미국을 위한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돌아볼 줄 아는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OC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연합회 사역과 회원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김도영 장로(연합회 감사)가 마무리 기도했다. 2부 순서는 OC 및 남가주 교계의 최근 소식을 전하고 2024년 하반기에 계획 중인 교계 행사에 대해 윤우경 전 이사장이 소개했다. 그는 지난 8월에 제3차 OC영적대각성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9월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주최 측 제공

새벽기도회와 목회자세미나, 사모블레싱 나이트가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보고했다. 올해로 3년 연속 진행된 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는 30대에서 50대

어진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감사한인교회 원로 김영길 목사와 시드교지회 권혁빈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교회성장과 사역을 위한 목회자의 사명과 실질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뉴미디어 시대에 IT 및 SNS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한국에서 4차산업 전문가로 활동 중인 남대니 목사가 특별 강의했다. 한편, 연합회는 주력 사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오는 10월 14일 로스 코요테 골프클럽에서 갖는다. 연합회는 그동안 4회에 걸친 골프대회와 올해 봄 성가참찬제를 통해 모인 한금으로 197명의 학생에게

98,500불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연합회 골프대회는 푸짐한 경품과 선물, 많은 사람의 참여로 이름을 알렸다. 골프대회 후원은 팜플렛 광고와 물품후원, 골프선수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합회 민길 이사장은 "그동안 지역 커뮤니티와 교회 성도님들의 참여로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었다. 올해도 선한 뜻을 가진 많은 분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권면했다. 문의는 회장 신용(562-399-2022), 이사장 민길(213-700-7877), 총괄준비위원장 한성준(714-306-5288), 홍보위원장 윤우경 이사(213-500-5449)에게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hatGTP사역 전략세미나 개최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 ©학교 측 제공

남가주 대표 한인신학교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이하 GMU)와 AI를 통해 미래목회를 준비하는 AI MISSION의 공동주최로 열린 ChatGTP사역 전략세미나가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ChatGTP사역전략 세미나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AI를 활용하여 교회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을 목표로 신앙 공동체와 목회, 선교, 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되었다. 1부 발제를 맡은 AI컨설턴트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ChatGTP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강단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ChatGTP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Ai mission 이창희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실질적인 ChatGTP를 활용법과 목회 카테고리별로 접목해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으며 3부에

서는 미션어웨이 대표이자 미래목회전략연구소 공동대표인 김광근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ChatGTP 사역을 통하여 이 시대 AI가 할 수 있는 목회 영역들을 소개했다. 또 세미나에는 현장 50여 명, 온라인 ZOOM 20여 명의 교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ChatGTP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목회와 선교, 교육 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기회와 도전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ChatGTP와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 신앙 공동체는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선교 활동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GMU는 미래목회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다.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m.edu 김민선 기자

추석맞이 한인 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잔치 열려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최영봉 목사) 후원, 방주교회(김영규 목사) 주최로 한인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잔치가 12일 오전 11시에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2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쌀 한포대와 이조캐터링에서 후원한 점심 도시락을 받았다. 남가주교회 증경회장 한기형 목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주님은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셨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부요하신 분"이라며 "예수에게 나아가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11월 선거에서 코리아타운이



사랑의 쌀을 나누는 모습. ©주최 측 제공

숙한 10지수 시의원으로서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도 참석해 한인타운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13일과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몬트 1-2가 사이에 있는 샘커뮤니티교회(샘신 목사)에서 쌀 나눔행사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사랑의 쌀 나눔잔치 예배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제21회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음악회 열린다

제21회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음악회가 9월 29일 오후 5시 오렌지 카운티 브레이크시에 위치한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에는 Joyous Children's Choir, 나침반교회 성가대, 에이레네 중창단, 코로나 뉴송교회 성가대, 바리통 류정상, 테너 오위영, Teen Challenge Orange Choir, 바이올린 Victoria Chun, 클라리넷 Lydia Kang, 첼로 Isaac Chun, 색소폰 주 훈 등의 연주한다. 오네시모 선교회는 지난 30년 전 1994년 김석기 목사가 창립한 이래 캘리포니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소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사역과 후원을 해왔다. 또 ▲가주 연방 정부 교도소 다인종 대상 예배사역(멕시코 샌 루이스 리

오 콜로라도 교도소 매주 화,금요일 예배) ▲가주 전역 소재한 교도소에 형제, 자매를 개별 방문해 상담과 복음 전도사역(매주 금요일 OC 감옥 방문) ▲영어와 한글로 된 소식지를 분기별 제작 발행해서 감옥에 우편으로 발송 등을 하고 있다. 2001년 '오네시모'를 설립 재소자들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있기도 하다. 음악회가 개최되는 나침반교회는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연에 대한 문의는 714-739-9100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김흥연 담임 목사 위임예배 및 임직감사예배 드린다

시애틀평강장로교회는 오는 22일 오후 4시 김흥연 담임 목사(사진) 위임 및 임직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김흥연 목사의 시애틀평강장로교회 3대 목사 위임식과

함께, 이 교회의 집사 안수 3명, 권사 임직 3명 등 총 6명의 임직자를 세울 예정이다. 시애틀평강장로교회는 예배와 차세대 교육, 선교와 제자양육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더욱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가고자 힘쓰고 있다. 김민선 기자

“평화와 화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핵심 사명이자 절실한 과제”

‘한반도 평화와 화해: 로잔 대회에 앞서 열리는 컨설테이션’
9월 20~21일 DMZ 인접 지역, 인천국립대 송도캠퍼서서 진행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직전, 전 세계 크리스천 리더가 이 시대 한반도의 최대 과제인 한반도 평화와 화해, 치유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을 순례하고, 기도하며,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전 행사가 개최된다.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DMZ 인근 및 인천국립대학교 송도캠퍼스 23호 빌딩 대강당과 주변 건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 로잔 대회에 앞서 열리는 컨설테이션(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 Pre-Congress Consultation)’이 진행된다. 이 모임에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제4차 로잔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각국 크리스천 리더 100여 명과 로잔대회 참가자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크리스천 리더 10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해 DMZ 방문, 저녁 예배 및 기도, 컨설테이션을 통해 함께 남북한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로잔대회 참가자와 비참가자들, 함께 ‘한반도 평화’ 이슈 다뤄

이번 컨설테이션 주제는 ‘홀 인 홀: 분열의 땅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다(Hole in Whole: Seeking Wholeness in a Divided Land)’이다. 아시아 53장 5절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자국으로 구멍 난 손이 전체 콘셉트이다. 로잔운동이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면, 이번 4차 로잔대회가 열리는 한반도는 여전히 가족,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분리하는 고통스러운 분열의 상처가 있는 현장이다. 컨설테이션 준비팀은 “한반도의 구멍 난 DMZ를 방문하고 나서 그 구멍 너머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볼 때는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구멍 난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심정자 작가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멍 난 손과 발을 형상화 한 작품 ‘스티그마 시리즈’가 메인 무대에 세로 8m 크기로, 로비에는 그보다 작은 크기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과거에 북한 사역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수단, 팔레스타인 등 지금도 내전, 분쟁 중인 국가를 포함한 30개국의 선교지도자가 DMZ를 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소그룹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각 나라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찢어져 있는 구멍들은 우리만의 역사 속 고민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아픔이고 전 인류의 실존임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구멍 나 있는 흔적들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20일 오전부터 DMZ와 인접한 민간인통제구역, 기타 역사적 장소를 투어한 후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인천국립대학교 송도캠퍼스 23호 빌딩 대강당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예배 및 기도를 드린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 컨설테이션 준비팀



(왼쪽) 컨설테이션 전체 코디네이터 김중호 NARI 대표가 대회 주제를 콘셉트로 제작한 심정자 작가의 ‘스티그마 시리즈’ 작품 옆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희희 기자 (오른쪽) 지난 6일 컨설테이션 정기 준비 모임이 어린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컨설테이션 준비팀



DMZ 방문 코디네이터 윤환철 마리아눔재단 사무총장은 “판문점과 도라산 전 망대는 현 상황에서 방문할 수 없어, 대신 분단과 전쟁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도라산 기차역, 임진각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대성동 마을 등을 돌아보고, 육안으로 북한의 기정동 마을, 개성공단 등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남한 사람이 받은 북한 운전면허증, 체류증 등을 보며 우리가 지난 72년 동안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회와 돌파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예배 코디네이터 J목사는 “예배에서는

설교 없이, 세대와 민족, 언어가 다양한 7명의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신의 언어로 화해와 평화, 한반도를 위한 기도문을 낭송하게 된다”며 “기도문은 스페인어, 필리핀어, 영어, 조선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예정이며, 기도 후에는 성찬식이 거행된다”고 말했다. 21일은 오전, 오후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 문제와 성경을 연결하는 주제 시간을 15분간 가진 후,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사역자 및 전문가 세 명이 10분씩 기조발표를 한 후 소그룹으로 나눠 토론하고 기도하게 된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의 협력해야”

컨설테이션 준비팀은 “원래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제4차 로잔대회에 한반도 평화 세션은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개최하는 로잔대회에 한반도 화해와 평화 이슈를 다루는 세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로잔대회 준비위원회 내부 및 외부 인사들의 마음이 모여 별도의 행사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이후 로잔 본 행사에 새롭게 추가됐지만, 3일간 총 3시간여 정도가 전부다. 그래서 프리 로잔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라며 “로잔 본 행사는 아니나 프리 행사로 로잔 참가자들이 추가로 함께할 수 있는 행사이고, 로잔대회 공식 참가자와 비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로잔을 넘나드는 행사”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 구성된 컨설테이션 준비팀은 지속해서 준비 모임을 갖고, 3개월여 전부터는 서울 마포 합정동 어린양교회에서 정기 기도 모임도 진행했다.

지난 6일 어린양교회에서 열린 준비 모임에서 만난 컨설테이션 전체 코디네이터 김중호 NARI 대표(전 IVF 대표)는 이 모임의 목적을 세 가지로 소개했다. 김 목사는 “첫째, 전 세계 크리스천 리더에게 한반도의 상황을 알리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사역에 동역하고 싶어서이다”라며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지역, 그리고 이를 넘어선 세계적 문제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비평화, 갈등, 아픔의 문제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알리고 협력을 요청하고 싶으며, 이들은 기도의 동역자, 각국의 공공외교, 창의적 접근을 위한 협력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둘째, 한반도의 문제를 공유하며 다른 갈등, 분쟁을 겪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모델과 도전, 협

력을 주고 싶어서이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국가 간 갈등뿐만 아니라 내전, 종교, 민족 간 갈등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각 지역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라며 “한반도 분단의 기간도 길고 심각성 크지만, 그만큼 한반도는 다양한 갈등, 협력, 연구, 사건 사례가 있으며, 이는 분쟁 상황에 놓인 타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사례, 도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반도의 사례가 특수하고 국지적인 사례에 머물지 않고, 세계 각지의 갈등과 비교하며 도움과 협력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참석자들이 가운데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 다수세계 사람도 많은데 팔레스타인과 같이 평화와 화해가 절실한 국가의 사람들도 있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평화와 화해 이슈가 굉장히 궁금하고 절실한 문제임을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중호 목사는 “셋째, 한국교회에 한반도 화해와 평화,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의 협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이다”라며 “한국교회는 남북문제에 있어 상당 부분 이념화, 진영화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논의하며, 오히려 한반도 밖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믿음과 소망, 사랑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본을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어려한 전 세계적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한국교회가 새롭게 보고 환기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중호 목사는 “우리가 준비한 프리 로잔대회에서 다루는 화해와 평화화가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토대로 볼 때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은 신앙의 사명 중 핵심적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깨닫고 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희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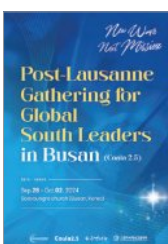
포스트 로잔 부산대회 및 COALA 2.5 대회 개최

KWMA 주최·수영로교회 후원,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하고 부산 수영로교회 등이 후원하는 포스트 로잔 부산대회(Post-Lausanne Meeting in Busan) 및 코알라(COALA) 2.5 대회가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직후인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개최된다.

로잔대회에 참가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남반구 출신 선교 지도자 중 35개국 1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후속 모임은 4차 로잔대회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총 25개의 주요 주제를 다루는 갭스(GAPs) 중 14번째 ‘다중심적 선교, 15번째 ‘다중심 자원의 동

원에 대한 논의에 이어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선교운동을 다루게 된다. 주요 일정은 9월 30일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KWMA 이사장)의 말씀 나눔을 시작으로, 4차 로잔대회 프로그램 위원장인 패트릭 펑(Patrick Fung), 세계복음주의



연맹(WEA) 선교위원장 제이 마탕가(Jay Matenga), 갈릴리 무브먼트의 의장 맨프레드 콜(Manfred Kohl) 등이 나서 글로벌 선교의 방향에 남반구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고, 새로운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KWMA는 “특히 이번 모임은 로잔운동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동시에 COALA 2.5대회로 진행된다”라며 “COALA(Christ

Over Asia, Africa, Arab and Latin)는 2023년 한국에서 1차 대회, 2024년 태국에서 2차 대회를 가진 남반구 선교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이에 COALA 지도자들도 강대해 KWMA 사무총장, 크리스티안 카스트로(Cristian Castro) 중남미선교협의회(COMIBAM-코미밤) 사무총장, 마니 코레아(Manik Corea) 싱가포르 세계선교센터(SCGM) 대표, 이사 사운다라자(Isac Soundararaja) 인도선교협의회(IMA-India Missions Association) 사무총장, 잭 사라(Jack Sara) 베들레헴 바이

블 칼리지(Bethlehem Bible College) 학장 등이 COARA 운동의 정신과 남반구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선교 운동, 남반구 선교가 나아가갈 방향과 미래 비전 등을 공유하게 된다. 크리스티안 카스트로는 2025년 4월 중미 파나마에서 열릴 COALA 3차 대회에 대한 방향과 주제도 나눌 계획이다.

KWMA는 “이번 대회는 글로벌 선교가 북반구 중심의 선교에서 남반구 중심의 새로운 선교운동으로 전환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희희 기자

경남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생애주기별 제감할 수 있는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영유아, 청년, 어르신 등 지원
- 위기관리센터 구축
- 저소득층 종합검진 지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과 동행하겠습니다

- 통합복지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 친원의 아침식사
-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새로운 도전으로 경남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과감한 대학혁신지원
- 미래전략산업 육성
- 균형발전

k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 동화약품의 역사
● 동화약품의 역사
● 동화약품의 역사

救命水

수 명 활

服 用 하 시 다

活 命 水 를

구급의장과 활명수
바르도비아의 의기충천 손기정 남승룡 양 서수 우승 축하
거기엔 체력 건기 불발하는 내구력의 근원인 오직 건전한 위장에서 배태된다
거기엔 조성을 목표로 하고 다같이 위장을 건전케 하기 위하여
활명수를 복용하십시오

半島男兒의意氣衝天
健康한體力、堅忍不拔하는耐久
力에根源은오직健全한胃腸에서
胚胎된다健康한朝鮮을目標하고
다갖치胃腸을健全케하기爲하야

地帶五町泉和府城京
房藥和同式株
九一七二光新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SINCE 1897

동화약품

그린닥터스, 추석 연휴 맞아 케냐에서 무료 의료봉사 진행

현지 근로자와 주민 대상 진료...
계약업체와 협력해 1억 원 상당 의약품 지원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가 추석 연휴를 맞아 아프리카 케냐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닥터스 재단(이사장 정근)은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케냐 마사이마라 등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온병원그룹 원장)은 “의사 5명을 포함한 15명의 봉사단이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를 거쳐 23일까지 11일간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마라 등에서 아프리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고

전했다.

그린닥터스 케냐봉사단에는 정근 이사장(안과전문의)을 비롯해, 정가정의원 정종훈 원장(가정의학과전문의), 인제대의대 박석주 교수(부산백병원 신장내과), 정신건강증진센터 김상엽 소장(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윤선희 이사장(안성향·병리학) 등 온종합병원 소속 의료진 등 5명의 의사가 동참한다. 또 박명순 사무총장, 권소현 부총장, 강순영 이사(현직 부장판사), 윤지민 이사(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과장) 등 그린닥터스 임원과, 김은전 마이금융파트너 대표·허소라 한아기



그린닥터스 케냐봉사단 기념 사진. ©그린닥터스재단

계 이사·이은주 온그룹의료재단 이사 등 여성 기업인, 의료전문채널 ONN닥터TV PD 3명 등도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 첫날에는 사나그룹 케냐 근로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가 진행됐다. 사나그룹은 1989년에 설

립된 가발 제조 기업으로, 동아프리카 가발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사나그룹 창업주 최영철 회장은 “40년 전, 제 나이 29세에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첫발을 디뎠으며, 그때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울컥한다”면서 “울해 봄 우연히 서울에서 만난 고교(경남 진주고) 5년 후배인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이 이번 케냐 의료봉사를 제안해 다시 한번 가슴이 울컥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마사이마라 루이루 지역의 고아원 등을 방문해 무료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사이마라는 마사이 종족이 사는 지역으로, 마사이 언어로 ‘드넓은 땅’이라는 뜻이다.

한편, 이번 봉사 활동을 위해 BNK부산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제약회사들이 1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 그린닥터스는 이 의약품을 사용해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나이로비에 개설된 그린닥터스 약국에 비치할 계획이다.

그린닥터스재단 정근 이사장은 “15년여 전에 코트디부아르 봉사 이후 또 다시 그린닥터스가 아프리카 오지로 봉사를 오게 됐다”며 “이번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 활동뿐만 아니라, 케냐 국립가족연구소 등을 방문해 최근 국제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수(人獸) 공통감염병’ 연구 현황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린닥터스는 케냐 나이로비에 지부를 설치하고, 케냐 의사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연수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장요한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소송, 1심 각하

전교조 서울지부 등의 무효 소송, 법원 “소송 요건 불충분”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것으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판결에서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했다. 이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재판이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 12월 공대위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효력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에는 중단됐던 폐지안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2심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폐지안의 효력은 재차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지난해 3월 김현기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학생인

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한 달 후 이를 수리한 사건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공대위는 학생, 교사, 보호자를 대표하는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수리 및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는 원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교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사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나래 기자

“조전혁 예비후보, 교육좌파 세력에 단호하게 맞설 인물”

조교연, 기자회견 갖고 지지 선언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28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한 ‘조전혁 후보지지 교육사회시민단체연대’이하 조교연)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사회 및 모두발언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김연희 공동대표가 맡았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주연 이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밖에 김은혜 학부모, 송금숙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이사, 이정은 보건과·학문연구회 회원이 순서를 맡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강력한 교육관한을 갖는 교육감의 가치관은 아이들의 교육 내용과 방향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예비후보는 지난 10년간 공고히 자리잡은 전교조와 교육좌파 세력에 단호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출마 예정자들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조교연

철저히 검증한 결과 조전혁 예비후보가 서울시민이 바라는 교육감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선언했다.

김연희 공동대표는 “서울시 교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진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 없는 백악관두에서 있다”며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조전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선언에 참여한 단체는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바른문화연대 서울희망포럼 서울시학부모연합 교육탐목 교육

바로세우기운동본부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전국청년바로서다 K자유문화지원연대 민생동행 자유민주공동체 공익민주인권연대 국민의희망 자유평화연대 자유민주네트워크 강남을움직이는사람들 한국글로벌포츠건강문화센터 (사)배움과돌봄네트워크 중국인문경영연구소 서울시검도협회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한국부패방지신문 유암문화재단 강남포럼 FIRSTKORA시민연대 국민계몽운동본부 나는부모다협회 다시뛰는강남스타일 등이다.

김진영 기자

살롬나비, 청량리 노숙자 및 독거노인 위한 섬김 사역

예배 드리고 점심 배식봉사...
사랑의 쌀 전달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추석을 앞두고 최근 서울 청량리 주변 노숙자들을 돕는 가나안쉼터를 방문해 예배를 드린 후 점심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주변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예배에선 살롬나비 자문위원인 최철희 선교사(사이아선교교회 고문)의 사회로 살롬나비 구제기도이사인 영광교회 이은희 집사(당카센터 대표)가 기도했고, 살롬나비 홍보기도 이사인 최성대 목사(라이프영성원 교수)가 사랑에 필요한 것(마 4:4)이라는 제목의 설교했다.

살롬나비 상임대표인 김영한 박사가



사랑의 쌀 전달식을 마치고. ©살롬나비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가나안쉼터 원장인 김정재 목사가 가나안쉼터에 대해 소개했으며, 살롬나비 사무총장인 김윤태 박사(백석대 기독교문헌대학원장)의 선장으로 살롬나비 행동강령 제창과 광고가 있는 뒤 육고기 목사(GMS 원로 선교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살롬나비는 학문을 연구하고 묵화하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 시민단체다. 매년 3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섬김과 나눔 사역을 펼치고 있다.

청량리 가나안쉼터(원장 김정재 목사)는 1996년 청량리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숙인을 가나안교회 교육관에서 보호하면서 부랑인과 결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1997년 IMF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리에 노숙인들이 쏟아져 나오자 교회가 문을 열어 노숙인을 받아들였다.

이후 노숙인을 위한 응급시설을 설치하고 노숙인 보호와 자활을 위한 사업과 저소득층의 응급 구호 등을 위한 무료숙소 지원, 무료급식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일자리 지원, 자활 영성교육, 자활지원 사업, 임대주택 운영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우리는 간다. 기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누구보다 먼저 진심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곳 어디든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대한적십자사

백종근 목사의 ‘하위럼 선교사 조선 선교행전’(9)

백종근 목사



◆부임 당시 선교부의 상황

1899년 5월 군산의 개항으로 조계지가 그려지자, 전킨은 당국으로부터 기존의 스테이션을 조계지 밖으로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은 터였다. 그는 수덕산 선교지부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해안가 구릉에 3만여 평의 대지를 매입해 스테이션 이전공사를 시작했었으나 그가 전주로 떠나게 되면서 진행은 지지부진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었다.

하위럼이 1904년 군산으로 부임해 왔을 당시 전킨 선교사에 의해 착공되었던 학교 건물은 골조만 세워진 채 흉측한 모습 그대로였다. 벽체를 쌓기 위한 벽돌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나마 일부 구해다 놓은 벽돌은 규격에 맞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내장 마감을 위한 타일마저도 크기가 너무 작고 불량품이 많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게다가 병원을 짓기 위해 구입해 부지에 쌓아둔 목재는 방치된 채 눈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 여실픈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제대로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교회들의 사정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도자가 없는 교회가 대여섯 곳이나 되었고, 또 다른 몇 군데에서는 인도자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는 데다 선교사를 도와 그들을 이끌어갈 조사(助事)를 발굴해 세운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 데다가 전킨이 전주로 옮겨가면서 자신들의 소속을 군산에서 전주로 바꿔 놓은 것에 불만을 터뜨리는 교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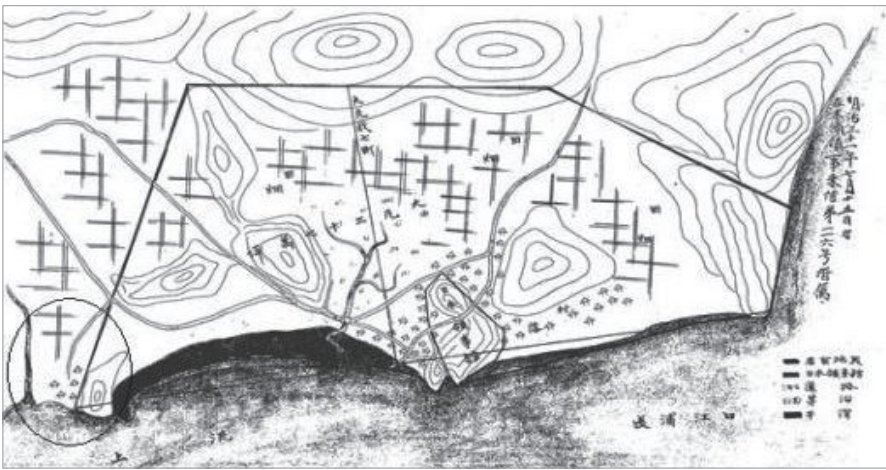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볼 때 스테이션에 고용된 사람 가운데 자리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 이들이 눈에 띄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들의 속내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한동안 곤혹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씩 해결되어 갔다.

한편 하위럼 선교사가 군산에 부임하고 나서 일 년쯤 되어 러일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해 3월 만주 봉천에서는 러시아의 육군을, 5월 쓰시마 해전에서는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무너뜨린 일본이 결국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는 거였다.

그해 일본은 3,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군산에 상륙시키더니 조계지 내에 여전히 남아있던 조선인들을 전부 조계지 바깥으로 내몰고 심지어 분묘까지도 이장케 했다. 그러더니 조계지를 중심으로 신도시를 빠르게 건설해 가기 시작했다. 수덕산 넘어 북쪽 해안가에서 정오가 되면 바다를 향해 대포를 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시계가 없는 주민들에게 시간을 알려준다는 명목이었으나 엄청난 대포 소리를 내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의 힘을 인식시키려는 심리적 효과도 노리는 듯했다.

새롭게 건설되는 조계지를 발판으로 일제는 바쁘게 움직였다. 일본인들이 몰릴 듯이 들어와 시내 곳곳에 인프라를 장악하더니 군산항 부두 공사를 시작으로 1908년 전주-군산 간 신차로를 개통하면서 호남에서 수탈한 미국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전진 기지로 만들어 갔다.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비록 수탈정책의 일환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선교사들은 내심 반겼다. 왜냐하면, 군산을 통해 들어오는 선교물자를 전주로 이동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익산과 김제로 가는 순회사역 역시 수로보다는 육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



개항 전(1898) 군산 그림지도

문이었다.

◆스테이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다

하위럼은 무엇보다도 스테이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 여기고, 드루가 살던 집을 개조해 다니엘 선교사의 숙소로 꾸미고, 다니엘과 함께 새로운 진료소를 설계해 1906년 3월 완공을 보았다. 그 이듬해, 그동안 미루어 오던 자신과 간호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 건축을 계획하면서 몇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실행으로 옮겼다. 시공에 필요한 목재는 충청도에서 별목해 금강을 통해 운반해 오기로 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벽돌과 타일, 창문, 문짝, 마루 등의 내장재는 미국에다 직접 주문을 내기도 했다.

건축공사 외에도 선교사의 숙소 근처에 오래된 우물을 대신해 새 우물을 다시 파기도 했는데 다행히 이전 우물보다 훨씬 수량(水量)도 많고 수질도 좋았다.

스테이션 내 진료소 건물이 완공되고 미국인 의사가 진료한다는 소문이 나자 원근 각처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기존의 시설로는 도저히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자, 하위럼은 다시 진료소 건물을 전통 한옥 양식으로 확장 증축을 구상하

고 18명의 환자가 동시에 입원할 수 있는 규모로 온돌방과 부엌, 세탁실 등의 개별 용도의 공간까지 따로 확보해 완공시켰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진료소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으나 만족할 만했다.

그해(1907) 마침 부위럼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 자리를 비운 사이 선교부지의 명목이전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자 매도인이 군산지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으나, 하위럼이 매도인과 직접 협상에 나서 3일 만에 극적으로 타협이 되면서 소송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하위럼은 교회와 병원 그리고 학교 건축을 포함 제반 법적 절차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군산 스테이션의 조성공사를 조기에 완료했다.

◆팀 사역을 이끌다

하위럼이 스테이션 조성공사와 더불어 선교사들의 활동을 총괄하면서 사역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해나갔다. 그는 지부의 모든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미 부임해 있던 분야별 선교사들과 팀 사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위럼 William F. Bull 선교사는 전도선을 타고 충남 일대를 순회하며 전도에 전념했다. 예배 처소마다 사람들이 몰

리고 있었고,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서는 인도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1905년 이 지역 4개 교회가 있었으나 그 이듬해 14개 교회로 급격히 늘었으며 그 중 6개 교회가 승인을 요청하고 있었다.

알비 Alby E. Bull 선교사는 스테이션 구내에서 여성과 어린이 사역을 맡아 주일학교 1개 반과 주중에 4개 반을 번갈아 가르쳤다.

아아력 Alexander M. Earle 선교사는 그동안 닦아온 조선어 실력으로 지역교회들을 매주 한 교회씩 번갈아 가며 설교하는 한편, 영명학교 교장으로 학생들의 경건 훈련을 지도하면서 주중에는 매일 2개 반에서 산수를 가르치기도 했다. 여학교는 교육선교사 다이샬트 Julia Dysart가 맡아 가르쳤다.

의료선교사 다니엘 Thomas H. Daniel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 외에도 틈을 내어 학교에서 위생학과 생리학을 가르쳤고, 주일에는 아내와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간호 선교사 케슬러 Ethel E. Kestler는 내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어 공부에 여념이 없었음에도

다니엘을 도와 그해(1906) 1/4분기에 벌써 대여섯 건의 수술을 치러내고 있었다.

하위럼은 팀 사역을 진행하면서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신분제도인 반상(班常)의 구별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교사들의 팀 사역의 효과에 크게 고무되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들의 팀 사역에 스스로 크게 고무되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크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양반들의 보수적인 분위기마저 점차 허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상(班常)을 불문하고 복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다.”

한편 그는 조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 본국의 교인들에게 원활한 팀 사역을 통해 조선의 복음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약함을 잘 아는지라 우리들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스러운 길을 내사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종근 목사는 한국에서 공과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산업연구원(KIET)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미국에 유학 후 다시 신학으로 바뀌어 오스틴 장로교 신학교(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 과정을 마치고 미국장로교(PCUSA)에서 목사가 되었다. 오레곤(Portland, Oregon)에서 출근 목회 후 은퇴해 지금은 피닉스 아리조나(Phoenix, Arizona)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펜데믹 기간 남장로교 초기 선교역사에 매몰해 『하나님 나라에서 개벽을 보다』와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건다』 두 권의 저서를 냈으며 그 가운데 하위럼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기록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건다』는 출간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스탠포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 이어 시카고 대학 도서관 Koean Collection에 선정되어 소장되기도 했다.

백종근 목사는 하위럼 선교사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초기 남장로교 조선 선교역사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설교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남장로교 선교사 부위럼(William F. Bull)의 선교행적을 정리해 집필하는 한편 디아스포라 선교역사 연구회를 결성해 마추한인 교회 역사를 찾아 복원하는 일에 빠져 있기도 하다.

자기효능감과 삶공부

김성수 목사

시애틀 지주교회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성공적으로 성취해 낼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무엇을 끝까지 해 내고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공부의 열정과 자신

감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읽어야 할 책의 양이 너무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매주 복리부를 써야 하는데 많은 양을 읽는 것도 힘들지만 후반부를 읽다 보면 앞부분이 기억나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 마디로, “내 나이에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자기 효능감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심적인 방향이 컸습니다. 하지

만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고 다시 끝까지 책을 읽고 결국에는 페이지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학교 공부나 사업, 직장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맡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효능감”을 높

이는 훈련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분들을 누가 일상에서 이런 훈련을 시켜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삶 공부”입니다. 삶 공부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작은 성취를 경험하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삶공부 등록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생명의 삶과 기본과정 외에 선택과정으로 “생명언어의 삶”을 추천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하는 게 아닙니다. 삶공부를 하다보면 다른 목장(牧場)과의 만남으로 색다른 교제의 깊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효능감은 물론 영적으로도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발기금

집채만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중소기업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철학의 역사와 신학의 흐름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

철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철학이 뭐냐를 말 하고자 하면, 어떤 형태든지 인간들이 하는 사고(생각)를 말한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 학문화 한 것이 철학이다. 사람의 생각하는 내용이 인간존재나 삶에 유익을 제공하는데 가치가 있으면 학문화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철학자라 부른다. 반면, 그저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철학자라 부르지 않는다.

이러한 깊이 있고 가치있는 사고를 한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었다. 주전 600년 경의 헤라클레이투스(Heraclitus), 탈레스(Thales), 피타고라스(Pythagoras)같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연의 운동의 법칙, 수학적 원리 등을 발견한 철학자들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인류 문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철학자들이었다.

철학자 하면, 주전 4세기 역시 그리스인들이었

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라스, 또는 크세노폰 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그들의 선대 철학자들의 관심이었던 자연과 학문야 보다 인간의 선이나 행복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더 깊게는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있는 일일까에 대해 논한 인물들이었다. 주로 인간 실체나, 도덕을 그들 학문의 주제로 삼았다. 이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1세기에는 로마가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시세로(일명 키케로), 신학쪽의 어거스틴 같은 인물들이었다. 당시 로마철학의 특징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자연과학, 인간존재, 또는 도덕적 내용보다 힘,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말하며, 나아가 어거스틴은 이 힘의 논리를 신학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신학을 하기도 했다.

16세기 즈음에는 철학이 유럽 북부 영국으로 건너갔다. 대표적인 인물이 존 로크(John Locke), 토마스 홉스(Thomas Hobbs)같은 학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인문주의의 활성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나 계시론 보다, 인간(문)주의(Humanism)로서 인간의 경험이나 합리성을 강조하는 철학을 구사하였다. 인간의 정신을 깨우고, 인간교양을 함양하는 계몽주의(Enlightenment)와 더불어 인문주의의 한 가지인 자유주의(Liberalism)를 주장했다.

인간 내면성보다 외향의 현실적 삶의 가치를 중요시한 철학을 한 것이다. 품위 있게 살자는 주의다.

그런 철학 사조가 이번에는 독일로 넘어 오게 되었다. 사실, 그때까지 독일은 영국의 명예혁명(1688)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나, 프랑스의 시민혁명(1789-1799)으로 인한 절대군주의 폐해 타파로 인한 시민들의 권리향상과 같은 특별한 세계사적 공헌이 없었다. 대신, 독일은 학문적 혁명으로 인간세계에 공헌했다. 대표적인 것은 임마누엘 칸트와 그의 이성주의 철학이다.

18세기 칸트의 이성주의는 그때까지의 철학적 주제나 방법론에서 색다른 차원이었다. 다른 사조처럼 신학적 관점의 연구에서 떠나 자연주의 철학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인간, 우주만물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자연주의 철학이다. 나아가 자연주의를 설명하는 이성을 그의 철학 실체의 도구로 삼았다. 이성으로 철학을 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이성은 모든 철학이나 학문 연구 방법론의 실체였다. 그의 유명한 “순수이성비판”(비판이란 비난이 아닌 연구, 또는 평가방법론을 뜻한다)도 이러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중심으로 하여 나온 것이다.

헤겔도 그때까지 해 오던 철학 연구 내용이나 방법론을 달리했다. 그 역시 이성중심의 논리를 중시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3단 논법이나, 변증법(Dialectics)도 그로부터 나왔다. 역사를 인간 경험,

도덕, 인식론 차원에서 보다, 정신에서 이해하려 했다. 정신을 형성하는 실체, 그리고 역사운동의 실체는 계시보다 이성임을 말한 것이다(관심이 가는 부분중의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주제나 인용에 있어서 칸트가 1위, 헤겔이 2위 순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독일 철학자들이 맹활약했다. 19-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하이데거, 쾰르트르, 그리고 신학계에서 볼트만 같은 인물들도 같은 역할을 했다. 평화주의를 외치다 순교한 본 회퍼도 있고, 정치신학자로 유명한 몰트만도 배출했다. 20세기 들어 철학이 프랑스로 넘어가 프랑스인들이 다시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 까지만 해도 독일철학의 실존주의나 인식론 등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컸고, 결국, 그들의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업적들이 인간 사고나 정신사를 이끌어 왔던 것은 틀림없다 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독일신학도 정통주의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슈라이어트마허(Schleiermacher)가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표적인 첫 주자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하르낙(Adolf Von Harnack), 리츨(Albrecht Ritschl)같은 학자들도 선두주자로 활약했다. 이들은 성서의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다, 헤겔처럼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분석, 이해하려 한 신학자

들이다. 인간심리, 정신, 윤리, 사고방식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적 성향에 반대한 바르트는 정통주의의 신학 회복을 위해 신정통주의(Neo-Orthodox) 신학을 내어 놓기도 했다.

독일은 각성 차원의 계몽주의를 넘어 가장 인간 정신 면모를 체계적으로 갖추게 한 학문적 공헌, 즉, 인간정신 의식을 높이고, 무슨 일이든지 바른 사고 속에서 존재를 증명하는 이성주의 철학으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창조한 공로가 있다. 또한, 신학계에서 현대신학의 장르를 창시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 이와는 반대로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이성주의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운동의 능력을 격하시킨 관점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프랑스계가 철학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칸트나 헤겔이 세웠던 이성주의마저도 부정하는 해체주의 철학을 했다. 이제에는 그 양상을 넘어,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유발 하라리(Yuval Harari)같은 경우, 과학연구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장하는 시기에까지 와 있다. 그가 “Homo Deus”를 썼는데, 말 그대로 “인간 신”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인간은 어디까지 달려 갈지 자못 궁금하다. 인간이 신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일까 망상일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



이기범 목사
타코마제일장로교회

첫째,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목사나 장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시고, 일부 청지기들(중직자들이 업무 소홀과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뜨겁고, 주님의 능력이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실제 삶에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역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고, 기쁜 소식을 대면으로 전하고, 인터넷으로 전하며, 소그룹이나 개인 만남을 통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마태 24:14). 사명감이 불타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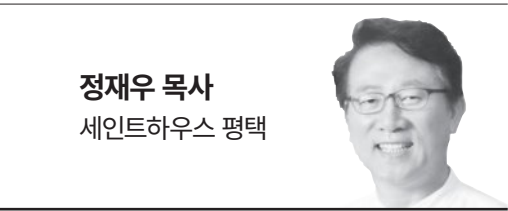
셋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혼자 울고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곁에 머물러주고, 함께 울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것이지요.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주님께 거저 받은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펄택

섬김형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리더가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성장과 복지를 우선시하고,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리더십 스타일이다. 이 리더십은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리더가 섬김의 자세를 통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 핵심 가치로는 공감, 경청, 헌신, 공동체 의식, 비전 제시 등이 포함된다.

이런 리더십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원초적인 리더십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지혜를 구하러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삶인지 알고자 찾아온 것이었다. 헬라인다는 발상이었다.

마침 그 시점이 예수가 예루살렘을 최후로 방

섬김형 리더십

문해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밝혔을 때였다. 이때에 예수는 인류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가 진리를 구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참된 의미 있는 삶이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요즘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거나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장악해 최고의 권한을 부여받아 국정을 운영하고자하는 당연한 정치적 속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의료계의 투쟁도 이해는 하지만 대화의 자리에서 나와서 서로의 간극을 해결하려는 섬김의 리더십을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담보로 이런 행태를 끌고 갈 것인지 국민은 최고 지성인들에게 실망하고 피로감을 심하게 겪고 있다.

기업들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단 있다면 어떤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행태를 보여준다. 외국에서 찾아온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열악한 노동의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한 줌의 재료 사라

지는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기업의 윤리를 질타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속성 상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순 없는 것인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리더십 철학은 직원들을 우선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 CEO 허브 켈러허(Herb Kelleher)는 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러한 리더십은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공에 기여했다.

패타고니아(Patagonia)의 창립자 이본 쉬나드는 섬김형 리더십으로 회사의 이익보다 환경 보호와 직원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며, 의사결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회사의 수익 일부를 환경 보호 활동에 기부하는 등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선진적인 섬김형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치인, 의료인, 경제인들을 보고 싶다. 한 알의 밀로 썩어져 언젠가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실화를 보고 싶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구원론: 십자가의 은혜(3)

최더함 박사

Th.D. 바로선개혁교회
담임목사



3. 십자가의 은혜

무엇보다 바울신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적 성취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명명합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갈라디아서 2:20절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구절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소개한 롬 5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롬 5:15, 20~21)

그리고 엠 1:28의 말씀도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마디로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모든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대하드라마를 저는 나뮴대로 4부작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연극으로 치면 1막부터 4막까지 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1막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협약에 따라 모든 구원의 계획을 작성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2막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구속협약에 따라 성자 하나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막은 구원의 적용입니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악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것을 빼앗아 갈 힘과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마지막 4막은 '영화'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홀연히 변화를 받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계속>

인생의 영광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교회



별써 가을입니다. 한국의 추석도 지났습니

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지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확인을 할 시간입니다. 더불어 가을의 대표적인 꽃,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감자가 피어 오릅니다.

코스모스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름 모를 들꽃에

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서 있는 수하고 소박하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정겨운 꽃입니다. 자세히 보면 먼저 된 꽃은 시들고 또 다른 꽃이 피어나므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꽃은 아름답습니다. 화초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영광을 풀의 꽃으로 비유합니다. 좋은 의미보다 잠시 있다 떨어지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화려한 꽃이 떨어질 때는 마르고 보잘것없으며 오히려 빗바람 추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빗자루에 쓸려야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꽃이 떨어짐으로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에너지를 저장하여 겨울의 추위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꽃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꽃과 나무의 또 다른 성숙입니다.

사람의 영광도 잠시입니다. 내려갈 때를 알고 멈출 줄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자랑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섬김과 성숙은 지속적이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선한 싸움과 사명의 경주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영광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오병이어 같은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는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영광은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최고의 꽃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귀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날 때 영광입니다.

社 說

핵무기 시설 공개한 북한의 뻔한 속셈

북한이 핵탄두에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며,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김정은이 핵무기연 구소와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쫓겨 숨겨두었던 HEU 생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질이다. 그걸 공개한 건 북한이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당장이라도 핵탄두를 생산할 능력을 갖췄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또 최근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의 불만을 '핵무력 발전' 성과로 덮으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정작 주목할 점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대미 협상용 포석일 것이라 해석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미국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도 HEU 생산시설만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랬던 북한이 핵무기 생산 기반인 HEU 시설을 스스로 공개한 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시설이 구체적으로 북한 내 어느 장소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 미국이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온 평양 인근 강선 단지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기존 영변 핵시설이나 아니면 제3의 장소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는 건 북한이 HEU 생산시설 내부를 압축해 공개했을 뿐 그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했기 때문이다.

공개한 사진에는 핵탄두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질인 농축 우라늄 제조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와 관련한 여러 장치들이 뿔뿔이 들어차있다. 이런 시설을 북한이 공개했다는 건 고농축 우라늄 제조 능력, 즉 핵무기 생산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는 설명이 안 된다. 김정은이 호언장담한 대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일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해 온 것으로 볼 때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1만개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통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약 15~2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되고 약 750~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1년 동안 돌려야 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왜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감춰두었던 핵시설 내부를 공개했는가 하는 점이다. 자기들이 상당한 핵무기 생산 보유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걸 대내외에 과시하는 의도가 분명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냐는 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등 복잡한 국제관계를 겨냥했을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 김정은이 현지 지도에 나선 핵관련 시설이 북한의 어느 지역인지, 또 언제 시찰을 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인지 오래 전에 있었던 걸 특정한 시기에 맞춰 공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김정은이 사찰한 날이 언제였든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지난 13일은 미국의 대선이 50여일 앞둔 날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좋은 시기다. 향후 북핵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이 깔려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대외 핵 협상 전략이다. 과거에 미국 정부와 유엔 등에서 거론했던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스스로 핵시설 내부를 공개한 것도 당연히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계산된 포석인 동시에 미국의 차기 정부가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압박으로 비친다.

이런 북한의 당당한 태도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에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출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였다. 공화당은 물론 4년 전 정강정책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했던 민주당까지 북한 비핵화가 슬며시 사라지면서 결국 북한이 노리는 '핵 보유국' 용인 분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북한은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뒤 탄도미사일을 쏘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전후해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북한이 핵 시설을 공개한 것을 놓고 7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이라 관측이 있다. 우리 정부도 핵 도발의 전조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미 대선에서 북핵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해리스 둘 중 누가 당선돼도 북한이 의도한 대로 풀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이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이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를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생존이 걸린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현실이란 점에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당장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북핵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한미군사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안보 선택 카드를 다양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보의 최종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력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2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2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넷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 ※목회자 고향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2025-1학기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정규 MA. Ph.D반)

칼빈대학교대학원 (1학년) 석사.박사	각 10명	사회복지 및 상담심리치료학. 석사. 박사 (토1일)
동원대학 (1학년) 명지대학 (3학년)	20명	사회복지. 평생교육사. 장학금 지급

칼빈대학교 담당교수 정효신 박사 010.4232.7704

장애인 활동지원사. 현재모집 중 (주중 월~금 & 주말반)

일 반 반	40시간	18세 이상 남녀 학력무관	◆국가공인 이수증을 취득 ◆국가가 급여를 지급
자격증반	1,2반	복지사 요양사 간호조무사	◆취업후 보험과 퇴직금 받음
토 요 반	32시간	상기와 같은 시간으로수업	◆굿피플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있음

법인: 착한 사람들 부설 **한국복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원**

원장 정상문 박사 문의 031)751-4977. 010-5536.8882

목회학 석사 (M.Div.eq) 9월 개강반 모집중

목회학석사eq (M.Div.eq)	목회석사는 계절학기로 매월 첫주 토요일 8주 집중교육 으로 수도권제대대학원대학교 총장의 M.Div.eq 학위를 받게 됩니다. 준목(강도사)은 남녀 목사로 임직받아 사역합니다.
--------------------	---

국제개혁신학원 MOU 수도권제대학원대학교목회대학원

원장 정상문 박사 Ph.D 010.5536.8882

[민간자격코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 **한국복지문화교육원**
평생교육법에 준한 한국복지문화교육원 제19조에 의한 등록된 민간자격증 과정입니다. 평생교육에 의한 강좌이며 단기간 코스입니다.

[과정] ~~~

병원동행사(5h)= 미래사회교육재단의 자격증

응급처치요원(8h) 응급처치강사(16h)=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리상담사. 실버 심리상담사. 멘토링 웰다잉지도사. 에니어그램지도사. 인성지도사

[한국복지문화교육원] 캘리그라피(30h) (매주 토요일 각 과별 전문교수가 직강 수업함)

지도교수: 정상문 박사 010.5536.8882

성남 모란역 12번출구 앞 100M 율현빌딩 7F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06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과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미디어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구 시흥 사랑의교회 선교방송)



장 대수 목사
(영화장, 설학박사(Ph.D))

장대수목사의 드라마같은 설교를 유튜브로 경험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장대수목사 검색해보세요.

YouTube

010-6325-3916

네이버검색 인천이룸교회하나님병원 기독교신문뉴스 이명호목사간증



최모산 목사

매일오후1시집회
한국에없는사역입니다
악한영결박처리할능력
이목사에게만 임하였음
어떤병도 낫습니다

유튜브검색 ▶ 인천이룸교회간증
통변 음성 영안투시 능력사모하는분 와보라
만수역1번출구앞 사역자공격당함 제거
전화상담치유 010-5612-4220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원활한
혈액순환!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항산화
건강까지



하루
2캡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사가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훈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송태훈 칼럼 만년에 타락한 유다 왕 아사

국가든 교회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

아사는 주전 930년경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남조를 통치한 제3대 왕으로 부임했다. 부친은 남유다 제2대 왕 아비얌이며, 모친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왕상 15:9,10). 통치 초기, 아사는 이스라엘 군왕의 모델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다.

국내에서 남색(男色)하는 자를 추방하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천여마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는 이유로 폐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을 모두 모아서 기드온 사밧가에서 불살랐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부왕의 유물들을 여호와와 전에 모두 헌물했

다.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을 글자대로 철저히 준행하도록 지시했고, 주위에 설립된 산당과 태양상 등은 제거했다. 아사의 신실한 종교개혁 운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오랫동안 국내만안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는 크고 작은 전쟁이 전혀 없었다(대하 15장).

종교개혁 후에는 국내 건설에 주력했다. 국내가 태평할 때 백성들에게 호소해 성읍 및 성곽과 만대를 원래대로 재건축했다(대하 14:6-8).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아사를 몹시 두려워해서 요새를 쌓을 정도였다(왕상 15:22, 렘 41:9). 부왕 때

에 40만이었던 군대를 몇 년 만에 58만명으로 증강했다(대하 13:3). 그의 아들 요사밧이 116만으로 남유다 최강의 군대를 만드는데 기초를 세웠다(대하 17:14-17).

대외적으로 구스(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프리카의 대군(군사 100만, 병기 300승)을 거느리고 침입해 왔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로 호소했다. 반수에 불과한 아사의 군대가 세라의 100만 대군을 기적적으로 거뜬하게 물리쳤다(대하 14:9-15). 구스 대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그랄(지중해 근처 가사 남쪽)까지 쫓아 가서 격퇴하고 개설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 아사라를 통하여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

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찌라...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는 말씀을 듣게 됐다. 아사는 아사라의 예언을 듣자마자 국내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모두 제거하고(대하 14:2,3), 허물어진 여호와와 단을 원래대로 성실하게 중수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범민족적인 민중대회를 열고 헌제하드로 칠칠절을 율법대로 성대하게 지켰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만을 철저히 섬기도록 지시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최대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치세 36년에 북조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베냐민 지역에 침입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는 북쪽 길을 막기 위해 라마 성을 건축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강국 다메섹 왕 벤하닷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호와와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보내서 바아사 왕을 격퇴해 주도록 부탁했다. 그때 아사가 취한 태도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잘 못된 것이었다. 선지자 하나니(예후의 부친)는, “만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군까지 격파했을 것인데 기회를 놓쳤고, 전에 구스 군대를 여호와와 능력으로 격퇴했는데 이번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고 예언했다. 목이 곧아진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노하여 선지자 하나니를 투옥하기에 이르렀다(대하 16:7-10).

아사는 만년에 여호와 중심의 신앙에서 떠났다. 치세 39년에 발에 병이 났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먼저 구하는 실수를 범했다. 결국

치세 41년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 초심을 가지고 살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면, 처음에 가졌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만 일을 처리하려는 욕심이 생긴다. 그때부터 매사가 정도에서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대통령도 국가를 위한 공복으로서의 초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권력과 통치 방법으로 국가와 국민을 압제한 결과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가를 모델로 보여 준다. 한 지도자의 인간적인 사심이 자신은 물론 국가까지 파괴하는 원흉이 된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졌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권혁승 칼럼 ‘가상철연(2)’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 첫 번째 가상철연이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용서의 무죄선언이라면, 두 번째 가상철연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용서의 무죄선언이다.

예수께서 못 박힌 십자가 좌우편에는 함께 처형을 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마태와 마가는 그들을 강도라고 불렀고, 누가는 행악자라고 지칭하였다. ‘강도’로 번역한 헬라어 ‘레스테스’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을 일컫는다. 당시 십자가는 반역이나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짓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비(非)로마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형방법이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였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마 27:44) 이들의 비난에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40)고 모욕하였고, 뒤이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조롱과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도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마 27:42) 두 강도를마져도 예수를 비난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당시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욕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잠시 후 상황이 바뀌었다. 한 강도는 비난과 욕을 계속하였지만, 다른 한 강도는 열의 강도를 꾸짖으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게나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0-41)고 하였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라고 했다.

어떤 계기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죽을 직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예수 앞에 회개를 한 것이다. 곧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대속을 위하여 죽으심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나라의 존재와 예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회개한 강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물이다. 인생은 짧아임이 주어지는 기회, 곧 카이로스의 연속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엡 5:15-16)고 하였다. 여기에서 ‘세월’은 기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로스’이다. 그것은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대조를 이룬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회개였다.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다. 깨우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며,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 여기에서 ‘책망’은 ‘유죄증명’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convict’라고 번역한다.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면, 누구도 변명의 여지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회개한 강도는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카이로스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회개한 강도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

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 회개가 곧 바로 응답된 것이다. 진심의 회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응답을 받는다. 강도가 예수와 함께 있게 될 낙원은 우리가 추구할 분향이요 궁극적인 하나님나라이다. 우리들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비적 단계의 하나님나라이다. 이 땅은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과 상급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 점은 바울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회개한 강도는 이 땅에서의 예비적 하나님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곧장 낙원으로 들어갔다.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가상철연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라도 구원받아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구원은 자신이 쌓은 공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 순간으로 미룰 필요는 없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얼마든지 이 땅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

을 경험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땅은 하나님나라에서의 상급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에 더욱 그러하다. 구원이 미루어질수록 영혼은 더욱 황폐하여져 구원을 얻되 초라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더없이 소중한 기간이다.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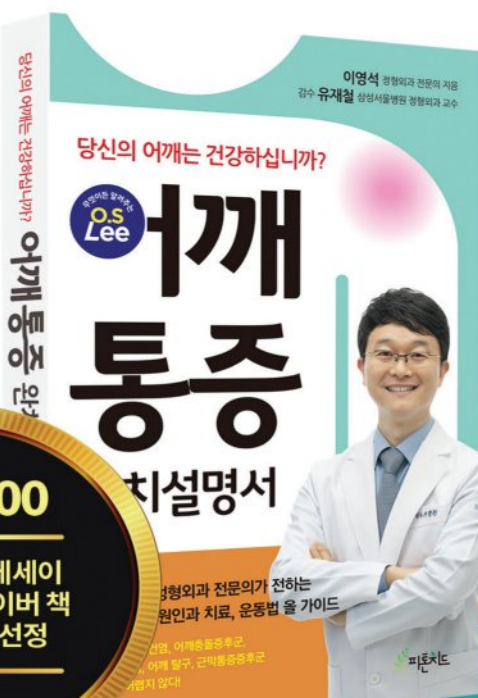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고린도전서 1:5

基督日報
기독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회오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1)

(고린도후서 1:3-7)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아끼워하지 않고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간적 일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오히려 자신의 영과 육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인도할 유일한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읽으며,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정독한 사람

치고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구절절이 우리를 감동시켜 위로를 주시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자기 자신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시 119:50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좌절의 구렁이에서 건지는 생명의 밭줄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 66:13 “어머니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마음에서 뜨겁게 역사하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듯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 40:1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차유 받았습니다. 이제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4절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자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자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능력자요, 위로자입니다.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숨기에 딱 맞는 은신처입니다. 시 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사라.”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경험한 성도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 24: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가 환난 때에 낙심을 한다면 사단에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어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환난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 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하나님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평안도 창조하셨지만, 환난과 우리의 삶의 어두운 터널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난에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환난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에게 위로를 베풀며 살아갑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 위로 : 본래의 의미로 - 가까이 부름, 소환 또는



간청, 간구, 권면, 권고, 격려, 위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고통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구원의 자리에 선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채찍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합니다. 시 119: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말씀을 깨달아 알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

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큰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구원의 자리까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승리하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한 소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 승리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잘 견디어 승리하기를 원한다.’ 히 5:8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오면 그것을 통하여 순종의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롬 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순종의 법과 믿음으로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을 보는 누군가가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십시오. <계속> 창골산 봉목사 제공

향유육함

영적 뜨거움의 체험

불이 들어오면 뜨겁고 불이 꺼지면 차가워집니다.

이는 물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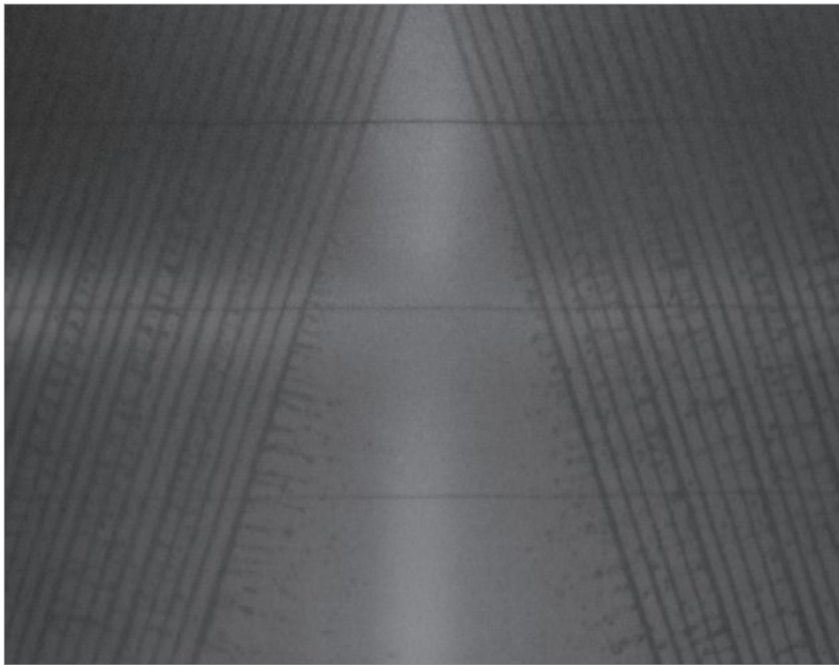
뜨겁다는 영적 체험은 하나님과의 소통(turn on)의 체험입니다.

이는 죄책으로부터 놓임을 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면 몸이 식고 오한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turn off) 현상입니다.

이는 죄책감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날 때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품 안에 안기면 뜨거운 영적 체험에 이릅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굿네이버스



Good Neighbors effect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당신의 손길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난 33년간 전 세계 좋은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Good Neighbors Effect 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세상에 좋은 변화 만들기

네 자리로 돌아가라



한평우 목사

작은 수도원을 만나게 된다. 그곳은 남녀 구분 없이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 꼭 우리나라 60년대의 시골 교회 같은 정감 있는 모습이다. 수도원의 건물은 화장이 없는 민낯으로 약간 수줍은 듯 동양에서 온 방문객을 받아 준다. 안에서는 여러 자매가 인도자 없이 묵상하는 중이었다. 호기심으로 후배 목사와 불쑥 들어갔는데, 그 흔한 의자도 없이 방석들만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유럽에서는 드물고 색다른 풍경이었다. 방석은 원하는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도록 배려한 것 같다.

참으로 오랜만에 방석을 깔고 앉아 눈을 감으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옛날의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매섭게 추운 겨울, 방석 하나만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던 시절 말이다. 이 수도원은 프랑스 수도사가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수

도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그 사상을 이어 받은 제자들이 수도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는 장식품이 거의 없다. 20세기 초에 시작된 이 수도원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곧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수도원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 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온 수도원의 생명력은 대단하다. 이런 수도원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경쟁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교회마다 값비싼 재료들로 최고의 건물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 교회는 지극히 화려한데 그 능력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그 옛날, 교회는 한없이 초라했어도 성령의 능력이 그 얼마나 강력했단까! 중세 어느 교황이 바티칸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내게 금과 은은 없다’는 말들은 적합하지 않지요” 했더니 옆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나 성하, 그 대신 지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라는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

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우선순위에 놓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겠지만, 과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싶다. 옛것제 베네딕트의 본산인 몬테 카시노 수도원(Monte Cassino Abbey)에 갔다가 예배당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이다. 평생 검소함을 추구했고 또 가르쳤던 베네딕트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눈살을 찌푸릴까 싶다. 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의도를 쉽게 넘어서려고 하는지 모른다.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벽은 금으로 빛났고 천장과 기둥머리도 그랬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험벗고 굶주린 사람들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중세 유럽 교회의 실상이었다. 성소는 결코 화려할 이유가 없다. 한없이 엄위한 구약의 지성소조차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화려함 대신 담백하고 엄숙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

나면서 성소를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것을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니 최선을 다해 치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인본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지나치게 화려하여 들어가기로 조심스러워지기보다는, 소박하고 질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성소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 옛날,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은 채 예배드리던 때가 그리워진다. 서울의 한 귀퉁이에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교회는 없을까? 항상 문이 열려 있고 한 귀퉁이에는 손때 묻은 작은 풍금이 소박하게 주인을 기다리는, 담백하고 수수한 민낯으로 사람을 맞이하던 그 옛날 시골 교회처럼 말이다. 그래서 삶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오가다가 부담 없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말이다. 웅장하

고 화려한 디자인이 아닌 아날로그 교회, 그런 교회의 예배가 그리워진다. 투박하지만 진실함이 딱지딱지 묻어 있는, 조금은 촌스러운 설교를 듣고 싶다.

이탈리아의 북구 토리노(Torino)에서 멀지 않은, 피아몬테(Piamonte)의 높은 산 앙그로나(Angrogna)에 가면 왈도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현장이 있다. 그곳은 알프스의 산자락으로, 깊은 계곡이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티칸 당국과 무려 60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2백만 명이 피를 뿌려야 했다. 흐르는 강물은 온통 그들이 흘린 피로 빨갛게 변했다고 역사는 증언한다. 그 계곡 해발 700~1,000m에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바위굴이 있다. 입구는 좁아 바짝 옆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50~6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그곳에 들어가 유럽 목회자들이 불렀던 찬양은 감격 그 이상이었다.

그 어떤 곳에서 불렀던 찬양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왜 그리 아름다운 비주일에 목숨을 걸고 있나 싶다. 시대를 선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세상을 따라가면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선배들이 암망했던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를 화려하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질박한 교회가 더욱 친근감이 느껴진다. 이런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져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어와 기도하고, 또는 서러움을 통곡으로 쏟아내고 확신을 가진 채 홀출 털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싶다. 그 옛날 은혜받았던 그 소박한 교회가 그리워진다.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로 EMI 유럽 목회자 연구원 창립 및 원장, 유럽 Koste 후원회장, 디모데 선교회 회장 및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한 시내에 있어 성소를 기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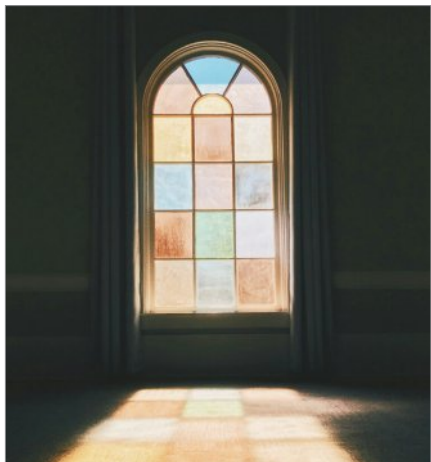
이선종 목사

이야기가 있는 두 줄기, 오늘날 교회에서 두 줄기를 구분해 보았다. 크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자기와 자기를 노출시켜서 세상과 섞여 있는 물줄기와 십자가 무리들의 물줄기로 나뉘어 있다.

시 살릴 불쏘시개가 없다.

또 한 무리, 어쩌다 같이 협력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불품없고 지독히 높은 샘터에 구태여 오르다 보물을 발견한다. 거기 말씀과 임재와 경외와 동행의 보물이 지천에 있다. 하늘이 하늘의 것이듯이 땅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아는 자들의(시 115:16) 참 기쁨이 넘친다.

찬양은 제정신 없는 자들의 것이 아니요 경외하는 자들의 소유이다.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에 기쁨과 찬양이 저절로 넘친다.



특별하며 어색한 외길에 들어서야 보인다.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까지 왔다가 집단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서로 설득하고 무리 지어 하산한다. 그리고 그럭저럭 좋았다고 간증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다. 그 무리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들도 성도들도 함께 있다.

후기

그 산엔 먹을 것도 적었고 거칠고 황무했으며 찾은 이가 적어 불편했고 다들 무서웠다고들 말하곤 했다. 더구나 이미 그들 대부분의 의견은 거기에 다시 가기는 어렵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마 다음엔 보다 좀 더 우아하고 풍요가 놓인 곳을 기대했다. 그들이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거룩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거룩은 자신의 죽음을 요구했기에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상식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룩에 임하려면 지사적 의지가 요구되는 것인데 누구든 유관심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입을 모아 강변했다. 그들 모두 성소에는 낯설고 독특한 마성과 묘한 기운이 있어 어지러웠으

며 기분이 이상했다고들 말했다. 성소는 단테 관광 여행으로 가기에 너무 외진 곳이었다. 그들은 영주 의사가 없었으므로 그냥 거기서 끝이었다.

보물을 본 소수의 무리들이 짐을 싸서 가족들과 그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불편한 삶을 시작했다. 더구나 죽음을 요구한 거룩함의 관문을 통과하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보였다. 처음엔 가족들 모두 여기 올라오자고 한 예지자의 선택에 불만이 없지 않았으나 점점 모든 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 모두가 자기 것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몸은 고달프나 마음과 영이 맑고 소담하고 치료의 약초가 지천이었으며 더구나 불멸의 약초도 있

었다. 자신의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아름다운 성소의 산에는 누구든 사랑받았고 천사들이었기에 찬송과 기쁨과 사랑으로 넘쳤다. 찬양하는 자의 물줄기는 거룩과 경외와 동행의 삶에서 나온다.

주님, 때때로 고단하더라도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전적으로 임문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허다한 관점이 지닌 허구를 보게 하옵소서.

하여, 나를 밝고 지나가소서.

나의 영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마음을 뿌리째 배워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이선종 목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VKCC 지휘자/성서 번역가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송실대 소장 독립운동 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 역사적 가치 인정받아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장 중인 두 건의 독립운동 관련 문서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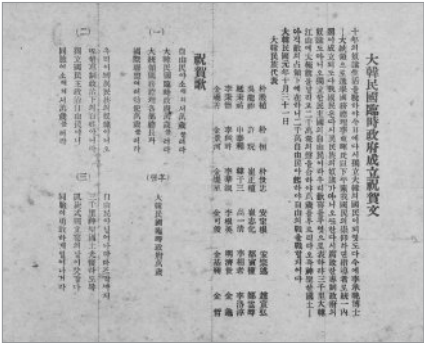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서들은 1919년 10월 31일 대한민국대표 30인이 발행한 환관 인쇄 전단으로,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당시 독립운동의 전개 양상을 상세히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선언서’는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과 형식이 31운동 당시의 독립선언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언서는 크게 선언문과 3개 장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약에는 독립운동의 기본 방침과 행동 지침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사상과 전략을 엿볼 수 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질서 있고 비폭력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부득이한 자위행동 시에도 부녀자, 어린이, 노약자, 병자에 대한 보호를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이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독립운동의 평화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은 해당 문서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이 문서들의 보존과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측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문서의 보존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사진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장 유물의 가치를 알리고 역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문화유산 등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초기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내리 기자

전 KBS 아나운서 신은경 권사, 성경 전권 낭독 ‘위드바이블’에 공개

CTS 기독교TV, 디맥스와 함께 성경 읽기 콘텐츠 확산에 앞장서... 글로벌 조회수 2,000만 회 돌파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 산하 IT 회사인 디맥스(DMEX Inc, 대표 김재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드바이블’에 전 KBS 아나운서 신은경 권사(장충단성결교회)의 성경 66권 전권 낭독 콘텐츠가 업로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CTS와 디맥스는 신은경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성경 읽기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신은경 권사는 “인생의 고난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로 성경 66권 전권을 낭독한 지난 6년의 시간은 개인에게도 큰 선물이 되었지만 한국교회와 다음세대에게 선물이 되어 기록한 신앙 유산이 되길 기대한다”



신은경 권사가 위드바이블에서 성경 전권을 낭독했다. ©CTS

고 소감을 전했다. ‘위드바이블’에 업로드된 신은경 권사의 시편과 잠언 낭독은 각각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채널은 성경 전권 낭독을 통해 총 누적 조회수 2,000만 회를 돌파하며, 전 세계 85개국 시청자들에게 성경을 제공하고 있다. 디맥스는 이번 성경 읽기 콘텐츠의 성공을 바탕으로 속독 버전, 테마 성경 낭

독 등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선교 전략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맞는 선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CTS의 IT 회사인 지로드코리아는 최근 사명을 디맥스(DMEX Inc.)로 변경하고, 디지털 미디어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세이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광단 강남성결(정인교) 30 TV광단 서울은혜(김태규)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10 [말씀] 윤길중 목사(영등포교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00 생명의 양식(서산성결(김형배)) 30 한소방 말씀 (류영모)(85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교회)	20 말씀의 센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30 부모에게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주만찬(37회) 40 오늘 만나는 큐티(26회)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세이 30 바이블 프로젝트 40 CTS현신예배 Praise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오 자유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430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144회) 로마서 15장	00 복음강단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신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백설기	50 말씀의 센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	00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심쇼>2	10 새롭게하소서(10869회) 김완태 집사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0 00 아주 특별한 찬양 5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20 말씀의 센터 솔로몬교회 홍성익 목사 5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20 오! 마이 박스 통합본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250회) 40 목사님 궁금해요(70회)	00 힐링토크 회복 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오후	11:00 40 [워킹몬데이바이블] 성지탐방	20 말씀의 센터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부모에게	00 옐포원(564회)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12:00 00 [생방송] CTS 뉴스 30 생명의 말씀-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00 우리들의 지식살롱 30 말씀의 센터 전주바울교회 신현오 목사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	00 TV광단 오병이어(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854회)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믿음의 리액션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근 목사(풍성한교회) 30 신앙예세이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센터 안양생명나무교회 손영숙 목사 30 말씀의 센터 소생교회 강복록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엘 기도회(9회)	30 만나 워십
	14:00 00 [생방송] 콜링캣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오 자유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 30 새롭게하소서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15:00 4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최경욱 목사(포감사선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142회) 열왕기서 39장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6:00 3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람은 강물처럼 30 말씀의 센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롱교회)	10 교회가는길(10회) 50 믿음의 대화 36.5(21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저녁	17:00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센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50 감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807회) 50 영혼의 양식, 송암(김정근)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우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Miracle Moment 40 TV찬양예배	00 비전설교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 30 아베스의 기도	10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광단 성남빛나는(서학복) 30 산위의마를 예배 (김영준)(204회)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30 말씀의 창 - 엘드림교회 임병태 목사
	19:00 00 2023 다나엘 기도회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0	30 바울로부터	20 만나다(19회) 30 TV광단 두란노(이상문)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독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리클 30 생명의 말씀-장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00 힐링스토리 1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우리들의 지식살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오! 마이 박스 통합본	00 CBS비전특강 이음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50 CBS 교회소식(964회)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21:00 00 CTS 뉴스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20 세계테마기행 50 GOODTV 뉴스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4144회) 로마서 15장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75회)	1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Seed>(씨드)
	22:00 30 백세특강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바울로부터	00 CBS NEWS 10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69회)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자녀	23:00 00 더 메시지 시즌2 50 신앙예세이	10 GOODTV 시네마 누기복음 1부 4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0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님의 증인들 30 오늘 만나는 큐티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431회)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리바이즈 워십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24:00 00 콜링캣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40 힐링송 50 우리들의 지식살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10 새롭게하소서(10869회) 김완태 집사	00 마음으로 말해요 궁금하고 5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1:00 00 감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20 말씀노트 3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20 세계테마기행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엘 기도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496회)	00 말씀의 창 - 하나임교회 이학권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 튀르키예	00 GOODTV 특별간증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30 TV광단 용인신성(이대희)	00 말씀의 창 - 퀸스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40 감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00 매일 주와 함께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율포원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박종순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143회) 요한복음 18장 50 CBS 교회소식(964회)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힐링토크 회복

SAMSUNG

안심케어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라이프

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시는 부모님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게 자식 마음이지요

시라이프를 부모님 댁에 놔드려 보세요

잘 일어나셨는지, 약은 잘 드셨는지 알 수 있고
위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죠

청소, 세탁, 설거지도 다 시에게 맡겨두고
전기요금 걱정없이 늘 시원하게 지내시도록

시와 함께 늘 곁에 있는 듯
부모님을 세심히 살펴 드리세요

세상에 없던
시라이프.



세상 편한 시라이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라이프를
특별한 혜택과 함께 시작하세요

*패밀리케어: TV, 냉장고, 정수기, 활동감지 알람은 연내 지원 예정 *복약알림: 조명, 스피커, 뮤직프레임 등 해당 기능 지원제품에 한함 *시기능은 일부 모델에 한함 *소비자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임